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에배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이 결정합니다.



2026.1.25.

사도행전 9:15~16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오늘은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이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의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우리는 참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코너에 '매력 자본'이라느니, '퍼스널 브랜딩'이라느니 하는 책들이 즐비합니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가장 화려한 순간, 가장 행복해 보이는 걸모습을 전시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는 '스펙'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젊음의 시간을 다바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Halo Effec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가 준수하거나, 명문대를 나왔거나,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지성, 성격, 도덕성까지 훌륭할 것이라고 짐작해 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모습 하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화려한 포장지가 내용물의 맛을 보장합니까? 겉이 번지르르한 그릇이 반드시 귀한 음식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혹은 겉은 투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진국 같은 인격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바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그리고 '걸모습'과 '내용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의 시선이 교정되고,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흐름 - 두려움의 시선 vs 사명의 시선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강력한 빛 앞에 꼬꾸라졌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마스쿠스의 한 골목,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마스쿠스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해를 입혔는지 압니다. 그가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잡아 결박하려는 목적입니다."

아나니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비친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폭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교회의 원수'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의 '과거'와 그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소문대로,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대로 그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주님은 아나니아의 두려움 섞인 항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인자 사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 (Chosen Instrument)"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아나니아)은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위험한 흥기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저 사람은 귀한 그릇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현재 모습, 즉 눈이 멀어 덜덜 떨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스테반을 죽였던 잔인한 모습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겉모습 너머, 앞으로 그 안에 담기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릇의 철학 - 본질은 비움과 채움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스케오스(skēuos)'라는 이 단어는 도구, 접시, 용기를 뜻합니다. 철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그릇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무언가를 담는 것'

입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청자라도 그 안에 독약을 담으면 그것은 ‘독약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투박한 뚝배기라도 그 안에 보약을 담으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보약 그릇’이 됩니다. 쓰레기통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밥그릇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릇의 재질이나 디자인은 그 그릇의 가격(Price)을 결정할지는 몰라도, 그 그릇의 가치(Value)와 정체성(Identity)은 오직 ‘무엇이 담겨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아니면 흙그릇이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평생을 허비합니다. 학벌이라는 금도금을 입히고, 연봉이라는 보석을 박고, 외모라는 광택을 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겉을 화려하게 꾸며놓고는, 정작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는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텅 빈 자아(Empty Self)’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과 공허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있으니,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소리가 요란한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보고 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 좋은 차, 넓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비결 - 내용물의 교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그는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사건 이전, 그 화려한 금그릇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은 무엇이었습니까? 9장 1절은 그것을 ‘위협과 살기’라고 말합니다. 그릇은 금그릇이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 차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그릇, 오히려 위험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시고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

까요? 그것은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지식, 그가 의지하던 율법, 그가 신봉하던 자신의 의(義)... 이 모든 독소들을 쏟아버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 빈 그릇에 새로운 내용물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라는 그릇에 ‘예수’가 담기자, 그는 살인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릇의 겉모습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머리에, 키가 작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살기’에서 ‘예수’로 바뀌자, 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토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쓰임 받는 그릇의 비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흙수저라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나라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재질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 기념관 박물관에는 아주 넓고 평범한 볼펜 한 자루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펜은 당시 어디서나 몇 센트면 살 수 있는, 겉보기엔 아무런 특징도 없는 싸구려 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은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되어 유리관 속에 모셔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펜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할 때 사용했던 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펜 옆에 금으로 만든 최고급 만년필이 있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비싼 필기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싸구려 펜이라도, 위대한 대통령의 손에 들려, 위대한 역사를 쓰는 잉크를 머금었을 때, 그것은 국보급 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당신은 흙그릇이네", "당신은 좀 작네", "당신은 흙집이 있네"라고 평가절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볼펜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금그릇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링컨의 펜이 노예를 해방하는 데 쓰였듯, 예수의 생명을 담은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선의 교정을 요구하십니다. "겉모습을 보지 마라. 그 안에 담긴 내 계획을 보아라. 그 안에 담길 내 이름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릇의 겉면을 닦고 광내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내 영혼은 텅 비어 공허함 속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가 나가고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움'입니다. 세상의 욕망, 미움, 비교 의식,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릇은 아무리 비싸도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은 '택한나의 그릇'이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가'에서 나옵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배를 제의할 때 중요한 것은 술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술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립시다. 그리고 빈 그릇 된 우리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웁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가장 존귀한 그릇이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